

## Appleton과 Bourassa의 '경관미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배정한\* · 조정송\*\*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 Theory in the Aesthetics of Landscape: A Critical Review of J. Appleton and S. Bourassa

Pae, Jeong-Hann · Cho, Jung-S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Philosophers of aesthetics have tended to limit their subject to include only objects of art. In contrast to art objects, landscapes include elements of both art and nature, and the aesthetic experiences of landscape are ordinary ones. Thus, the theoretical alternatives, that cannot be like the traditional aesthetic dogma of art, must be explored. Jay Appleton's theory i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a comprehensive theory of landscape aesthetics. He concentrates on the question 'what do we like about landscape and why do we like it.' He takes the assumption that the aesthetic experience of landscape is pleasurable or satisfying, and suggests the biologically oriented theory, called 'prospect-refuge theory.' Although his theory is stimulating and highly speculative, it depends on the 'aesthetic attitude' theory of Kantian thought. His theory can be criticized for its biologically deterministic nature and its reductionism. To respond to Appleton's shortcomings, that i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biological and cultural explanations of aesthetic experience of landscape, Steven Bourassa tries to combine biological, cultural, and personal modes in a comprehensive paradigm for research in landscape aesthetics. This tripartite paradigm seems to promise to be meaningful in helping to pose important questions as well as in avoiding conceptual errors about aesthetic domain of landscape. However, Bourassa's theory fails to integrate such three separate kinds of modes. In the final analysis, both Appleton and Bourassa present some successes in expanding the scope of aesthetics to embrace landscape. Most important for a theory in landscape aesthetics must be its ability to enlarge our awareness of the aesthetic domain and its sound logic and evidence to criticize our problematic beliefs about the aesthetic idea of landscape.

## I. 머리말

예술작품의 미와는 달리 경관이나 환경의 '미'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가치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경관이나 환경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미의 문제를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경관/환경의 미란 과연 무엇인가," "경관/환경의 미를 이루는 가치는 무엇인가," "경관/환경의 미 혹은 미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사고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왜 그러한가" 등과 같은 철학적 의문을 해명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한다던가 경관 요소의 시각적 특질을 물리적 속성 위주로 파악하는 등 응용의 측면에만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더우기 "이 시대의 미학연구는 예술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주목할 뿐이지 자연미에 대해서는 주목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헵번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19세기 이후의 근대미학은 인간 이성의 산물인 예술만을 그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관과 환경을 미학의 대상으로 삼고자

노력해온 칼슨(Allen Carlson), 베얼린트(Arnold Berleant) 등과 같은 미학자나 애플턴(Jay Appleton)<sup>2)</sup>과 같은 지리학자의 연구가 1970년대 이후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들과 같이 아직 채 조명되고 있지 못한 환경/경관미학자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인 환경/경관미학의 이론적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 중 첫 단계로서, 우선 애플턴의 이론과 보우래서(Steven C. Bourassa)<sup>3)</sup>의 이론에 나타나는 제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경관미학연구의 현재 수준과 동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sup>4)</sup>

경관미학 및 평가 분야의 "이론적 공백"(theoretical vacuum)<sup>5)</sup>을 지적하여 이후 이론적 연구의 촉매가 되었던 애플턴은 「경관의 경험」<sup>6)</sup>이라는 선구적 저서에서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초한 "조망-은신 이론"(prospect-refuge theory)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이론은 여러 학자들의 검증과 비판을 거치면서 경관의 미적 경험에 관한 연구의 한 전형으로 자리잡은 바 있다. 한편 최근에 출간된 보우래서의 저서

1) Ronald W. Hepburn, "Aesthetic Appreciation in Nature," in H. Osborne, ed., *Aesthetic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Weybright & Talley, 1968), p. 49.

2) 애플턴은 영국의 Oxford University와 King College에서 수학했으며 University of Hull에서 30여년간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그는 University of England, University of Canterbur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Guelph 등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현재 Landscape Research Group의 의장을 맡고 있다. 그간 애플턴이 발표한 주요 논문과 저서는 본고의 참고문헌란에 수록함.

3) 현재 Memphis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의 조교수인 보우래서는 Delaware University Edmunds V. Bunksé 교수에게서 사사받던 1976년 무렵 '경관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Australian University의 Urban Research Program에서 박사후과정을 수료하면서 경관미학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게 된다. 그의 주요논문과 저서는 본고의 참고문헌란에 수록함.

4) 경관미학과 환경미학은 '경관'과 '환경'이라는 다른 개념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경관미학'이라는 용어는 인문지리학이나 조경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환경미학'이라는 용어는 미학 및 환경심리학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조성송·배정환,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구조와 문제 - 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 『미학』 19집, 1994, pp. 225-59). 그러므로 경관미학과 환경미학을 구별하고 개념 정의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개념과 '환경'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애플턴과 보우래서가 제시하는 이론적 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본고의 범위에서는 다소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계속 논의되겠지만, 애플턴은 경관을 "시각적으로 지각된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보우래서는 "지각 주체가 대상에 참여하여 공감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경관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경관 개념간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준의 개념 파악으로도 본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논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혹은 경관)미학의 전체 개념으로서의 '환경'(혹은 경관)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다른 기회에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논제일 것이다.

5) Appleton, "Landscape Evaluation: the Theoretical Vacuum,"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66, 1975, p. 123.

6) Appleton, *The Experience of Landscape*(London: John Wiley & Sons, 1975) 앞으로는 편의상 EOL로 약칭함.

「경관미학」<sup>7)</sup>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이론적 모형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애플턴의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고에서 애플턴과 보우래서의 이론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첫째, 경관미학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이론은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문제의식과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관미학연구의 수준을 가늠해 보기에 유용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둘째, 양자 모두 경관의 미적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보우래서가 애플턴에 대한 비판에서 이론의 실마리를 잡아나갔다는 점에서 간파할 수 있듯이 이들이 미적 경험의 토대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상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이들의 이론이 경관미학연구의 전체적 경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약 20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주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애플턴과 보우래서의 이론을 ‘경관’이라는 ‘문제’와 ‘미학’이라는 ‘방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보우래서가 애플턴을 비판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점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자가 주로 논의하고 있는 “미적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이론이 올바른 논리(sound logic)와 증거(evidence)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조명하고 한계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론을 통해 경관미학의 제문제를 투영하고 그 과제를 전망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 II. 애플턴 경관미학이론의 제문제

### 1. 애플턴 이론의 기본 맥락

먼저 애플턴이 제시하는 이론의 주된 맥락을 짚어 보기로 한다. 우선 마주치게 되는 난점은 그

가 「경관의 경험」의 어느 부분에서도 ‘경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예술과 과학에서의 경관」이라는 저서에서 그가 “‘경관’은 ‘환경’과 동의어가 아니라 ‘지각된 환경’이며 특히 시각적으로 지각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경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시각적인 국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애플턴은 경관의 경험이란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경험의 토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의 요체를 그는 “적지선호이론”(habitat theory)이라고 설명한다.

(적지선호이론이란) 경관에서의 미적 쾌(aesthetic pleasure)는 생물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관찰자로부터 비롯된다(는 이론이다).<sup>9)</sup>

달리 말해서 경관에 대한 미적 반응은 선천적인 것이며 생존을 위한 생물적 욕구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이론은 반드시 두점으로 이루어진다. 즉, 그러한 생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당한 경관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첫번째 점이며, 그러한 충족의 산물이 어찌하여 쾌인가라는 점에 대한 메카니즘을 가정하는 것이 두번째 점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를 굽어보더라도 인류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예민한 감성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했다. 이러한 감성은 개인이나 종족에게 있어서 식욕이나 성적 충동에 못지 않게 없어서는 안될 것이었다. 물론 그러한 감성의 실제적, 생존적 가치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희석되었지만, 인류의 행태적 특성으로서 그러한 감성 그 자체는 유전적으로 전해져왔으며 우리 개개인에게 여전히 잔존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애플턴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관의 경험에 있어서 미적 만족(aesthetic satis-

7) Bourassa, *The Aesthetics of Landscape*(London: Belhaven, 1991). 앞으로는 편의상 AOL로 약칭함.

8) Appleton, *Landscape in the Arts and the Sciences*(Univ. of Hull Press, 1980), p.14.

9) EOL, p.73.

faction)이란

경관의 특징들을 그것들의 형상, 색채, 공간적 배열 및 여타 시각적 인자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 경관의 특징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생존에 유리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간에 생존에 유리한 환경적 조건을 암시하는 기호-자극(sign-stimuli)으로서 행위하게 된다.<sup>10)</sup>

물론 “적지선호이론”만으로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관의 미적 문제를 모두 다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애플턴은 생각한 듯 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몇가지 개념으로 이를 변안한 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조망-은신 이론”(prospect-refuge theory)<sup>11)</sup>이다. 이 이론은 경관에 대한 우리의 유쾌한 미적 경험을 “적지선호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기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성분은 “조망”(prospect)과 “은신”(refuge)이라는 개념이다. “조망”은 보는 행위(to see)를 방해하지 않는 기회를 제공하며, “은신”은 보이지 않게 하는(not being seen) 수단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관자와 경관 사이에는 “조망-은신”의 관계가 설정된다. 즉, 인간이 경관을 경험하고 감상할 때에는 관자 자신은 숨기고 경관을 관조하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sup>12)</sup>

자신을 보이지 않고(숨기고) 볼 수 있는 능력은 많은 [생물적] 욕구의 만족에 있어서 중간 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망-은신 이론은 환경의 수용력은 이것의 획득이 미적 만족의 보다 직접적인 원천이 된다는 점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sup>13)</sup>

이런 이유로 애플턴은 자신의 이론을 “숨기와 찾기의 미학”(hide-and-peek aesthetics)<sup>14)</su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조망”과 “은신”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

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목적성을 띠는 개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애플턴이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세번째 성분 즉 “위험”(hazard)이라는 개념을 도입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다.<sup>15)</sup>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월한 지위—조망—를 제공하고 보호—은신—를 보장해주는 경관의 특징들을 구분함으로써 쾌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조망”과 “은신” 그리고 특히 “위험”이 실제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경관의 특징들은 대개 실제적으로는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위험의 관념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조망”과 “은신”과 “위험”의 기호로서 취할 수 있는 경관의 특징들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애플턴은 이들 세가지 기본적 성분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분류하고자 한다. 즉 “조망—은신 이론”의 관점에서 특별한 경관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경관의 미적 요소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경관의 전체적 영향 혹은 ‘느낌’은 이들 요소의 혼합 다시 말해서 이들 상징적 요소들 사이의 균형이나 평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애플턴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거친 후, 그는 자신의 미학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실제 경관, 풍경화, 경관묘사문 등 방대한 양의 실례를 들어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시킨다. 애플턴이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각자와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했던 자신의 이론은 물론, 미적 경험과 다른 유형의 경험간의 구별을 최소화시켰던 듀이(John Dewey)

10) EOL, p.69.

11) Prospect, refuge, hazard, habitat 등의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플턴이 의도한 본래의 의미가 다소 상실될 위험이 있기는 하다고 판단된다.

12) Cf. EOL, pp.146-151, 192-210.

13) EOL, p.73.

14) EOL, p.101.

15) Hazard 개념에 대해서는, Cf. EOL, pp.95-101.

의 견해를 차용하여,<sup>16)</sup> 애플턴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모든 반응—예컨대 원시성에 대한 동경, 조깅, 등산, 스키, 운전, 동굴탐험, 골프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행위—이 자신의 이론 속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구명하려고까지 한 것이다.

애플턴의 이론은 몇몇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적절성을 검증받기도 했고 응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예로 “조망-은신 이론”을 계량적으로 시험한 클럼프와 파웰의 연구, 경관평가에 응용한 우드덕의 연구, 해안사구경관에 대한 히링거스의 연구, 회화의 해석에 응용한 폴슨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sup>17)</sup> 한편, 애플턴의 이론은 지리학이나 미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18)</sup>

## 2 미적 태도론과 “조망—은신 이론”

“우리는 경관에 관해서 무엇을 좋아하며 왜 그것을 좋아하는가?”<sup>19)</sup> 라는 의문에서 논의의 단초를 잡고 있는 애플턴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관의 미를 꽤 곧 즐거움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즐거움이 전부 다 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미라는 말로 불려지는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 환기될 수 있기 위한 심적 조건이나 계기에 대한 설명

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애플턴이 “조망-은신 이론”을 끌어내고 있는 것은 유쾌하고 즐거운 미적 경험의 심적 토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배경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그의 사고를 서양미학사의 문맥에서 비추어보면 그것은 곧 18세기의 취미론에서 비롯하여 19세기를 거치며 성립되었고 현대미학에 있어서도 주된 분파를 구성하고 있는 “미적 태도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고대로부터 계속되어온 객관적인 미 개념—예컨대 비레나 조화와 같은 어떤 경험적 성질 혹은 이념과 같은 초월적 실재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미 개념—의 종지부를 찍은 미적 태도론은 ‘미적’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특별한 지각 방식’, 곧 특별한 미적 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신념에 입각한 것이다. 애플턴의 “조망-은신 이론” 역시 미적 경험의 특별한 지각 방식의 하나라 볼 수 있고, 그것은 생물적 욕구의 만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러한 특별한 태도는 미적 대상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 즉 미적 태도가 미적 대상의 파악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 미적 태도론의 입장이다. 애플턴 역시 경관에 대한 특별한 태도가 경관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입장을 견지한다.<sup>21)</sup> 이

16) 듀이는 예술과 미학을 실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려 했으며, 미학의 기본 문제는 “미적 경험의 연속성을 삶의 일상적 과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미적 경험의 근원은 유기체와 그들의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서 미적 경험의 생물학적 기반을 시사한다. Cf. Dewey, *Art as Experience* (New York: Allen & Unwin, 1934). 필자는 듀이의 입장이 환경미학에 대해 갖는 함의를 다음 논문의 1절에서 검토한 바 있다. 조정송·배정환,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구조와 문제,” 『미학』 19집, 1994, pp. 225-59.

17) Cf. Clamp & Powell (1982): Woodcock (1982): Heyligers (1981): Paulson (1976/77, 1982). 이들 문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고의 참고문헌란을 참조할 것.

18) Cf. Crawford (1976): Tuans (1976): Jean (1977): Bunkse (1977): Bergman (1978): Carlson (1993) 등. 이들 문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고의 참고문헌란을 참조할 것.

19) *EOL*, p. vii.

20) “미적 태도론”은 그 이전의 미론과는 달리 ‘주관’의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이는데, 이는 로크 (J. Locke)의 경험주의 철학과 샤프스베리 (Shaftesbury)의 ‘무관심성’ (disinterestedness) 개념에 영향받은 18세기의 ‘취미론’에서 그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한다—예컨대 애디슨 (J. Addison)과 알리슨 (A. Alison). 주관의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칸트 (I. Kant)에 이르러 분수령을 이루고 뒤이어 쉴러 (F. Schiller)와 쇼펜하우어 (A. Schopenhauer)로 이어져 미적 태도론이 성립하게 된다. 이는 현대미학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벌로우 (E. Bullough)의 ‘심적 거리’론, 스톨니츠 (J. Stolz)와 비바스 (E. Vivas)의 ‘미적 주목’론, 올드리치 (V. Aldrich)의 ‘미적 지각’론 등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미적 태도론의 형성과정과 구조, 그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G. Dickie *Art and the Aesthetic: An Institutional Analysis* (Cornell Univ. Press, 1974): 오병남, “미적 태도론의 성립과 현대미학의 문제,” 『미학』, 6, 1979, pp. 1-27.

21) 애플턴이 말하는 꽤로 통하는 통로, 즉 특별한 미적 태도는 생물적인 욕구의 만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렇듯 미적 태도론과 애플턴의 이론에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정이 옳다면, 애플턴의 이론은 미적 태도론이 지니는 한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sup>22)</sup> 미적 태도론을 공박하는 비판의 대표적인 형태는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허구에 대한 심리주의적 분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미적 대상이 미적 태도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경관이라는 미적 대상은 경관에 대한 특수한 태도의 심리적 대상이 되어버리고 실제의 경관은 논의의 과정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될 수 있는 소지를 애플턴의 이론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플턴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조망-은신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자. 첫째, 그의 이론에 의한 미적 경험은 실제의 경관에 대한 경험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조망—은신”의 관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자 자신은 숨기고 경관을 관조한다는 입장, 곧 보이지 않고 보는 (see without being seen) 입장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때 경관의 미적 경험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아와 대상 사이에 어떤 ‘심적 거리’ (psychical distance)를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생활의 모든 관심과 의욕을 초탈하여 순수하게 대상으로 몰입하는 ‘무관심성’ (disinterestedness)<sup>24)</sup>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적 거리’는 ‘무관심성’의 개념을 변안한 것에 다름 아니며, “조망—은신 이론”의 문제점은 곧 ‘심적 거리’론의 문제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조망-은신의 관계는 관조적 풍경화 (contemplative landscape painting)에 나타나는 화가(관자)와 대상(경관)간의 관계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sup>26)</sup> 관조적 풍경화에 나타나는 경관에서 여실히 나타나듯, 조망-은신의 설정에 의한 경관의 미적 경험은 실제의 경관 상황에 대한 경험 자체가 아니라 관자가 지각 대상과 어떤 심적 거리를 설정하여 관조한 결과로서 형성된 경관의 ‘이미지’에 대한 경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둘째, 사실 애플턴이 미적 쾌 혹은 만족에 관해서 하고 있는 가정은 검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는 경관에 대한 우리의 미적 경험에 관해 개연성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적 쾌는 생물적 욕구의 만족에 감성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어디에서도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생물적 욕구의 만족이 반드시 미적 쾌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예컨대 우리는 일상적으로 숨쉬고 목욕하고 자고 먹고 배설하는 행위 등에서는 미적 쾌를 얻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왜 경관의 특정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 미적 쾌를 낳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그러한 해명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애플턴의 이론이 개연성을 가지려면 보다 복합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욕구가 더 이상 실제의 욕구가 아니고 욕구의 만족 역시 실제적인 것이 아닐 때 즉 상징적인 것일 때 쾌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미적인 경우가 바로 그 전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에서의 쾌는 그것의 실제적 원천으로부터 두단계나 떨어져 있는 것이 된다. 인간은 과거의 생물적 욕구에 대해 상징적으로 만족함으로써 생겨나는 쾌를 선천적으로 갖게 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이 쾌가 과연 미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낳는 것이다. 애플턴은 이 점에 관해서 난

22) 미적 태도론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미학자로는 죠지 디키를 들 수 있다. Cf. Dickie, *op. cit.*, esp. ch. 4, 5, 6.

23) 벨로우에 의하면, “심적 거리”는 주관과 그것의 정감들 사이에 ‘개재되어’ 미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의식의 한심적 구성요소이다. 미적 경험이란 심적 거리의 개재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미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경험의 도중에 심적으로 거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Cf. *Ibid.*, ch. 4.

24) 18세기 취미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 샤프스베리에 있어서의 “무관심적”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 추구가 동기가 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로서 이른바 내적 감각으로 상정된 취미를 통해 감각적인 세계의 대상들-자연 혹은 예술작품-로부터 미를 파악하거나 관조할 때의 심리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서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현존재의 표상에 결부된 관심을 결여한 태도라 할 수 있다. Cf. 오병남, *op. cit.*, pp. 5-7.

25) Cf. Dickie, *op. cit.*, ch. 4.

2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황기원, “풍경화에 나타난 경관,” 『환경논총』, 24, 1989, pp. 26-74.

관에 봉착했던 것 같다. 그는 경관에 대한 미적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경관의 요소 그 자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경관의 “전체적 느낌”(total feel)을 언급했고 균형과 평형이라는 미적 범주를 자신의 이론에 통합시키려고 했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 우리의 경관 감상에 보다 적절하게 하는 과정에서, 애플턴은 자신의 고유한 이론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 이러한 탈선은 아마도 애플턴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망—은신 이론”은 단독적으로는 성립되기 힘든 이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애플턴이 우리가 경관을 경험할 때 느끼는 것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애당초 상정했던 “적지선호이론”을 축소시키지 말고 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인간은 경관의 특정 요소를 자기보전(self-preservation)에 필수적인 “조망”과 “은신”의 기호 혹은 상징으로서 보기 때문에 경관에 반응한다고 애플턴은 주장한다. 하지만 경관의 다른 요소들 역시 자기보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 애플턴이 예컨대 비옥한 들판이나 좋은 날씨 등과 같은 요소들을 무시했는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적지선호이론”은 애플턴이 “조망—은신 이론”을 통해 언급한 요소들 이상의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쓰였어야 한다.<sup>28)</sup>

### 3. 생물학적 결정론의 한계

경관의 미적 경험과 선천적인 생물적 욕구의 만족을 연결시켜 경관의 미적 경험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애플턴의 이론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풍이 세차게 몰려오고 있고, 짐채만한 파도가 달려들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물

들의 윤곽을 흐릿하게 하는 짙은 안개가 온몸을 휘어감고 있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애플턴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상황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관에서는 미적 왜나 미적 만족에 의한 미적 경험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물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서 그러한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위험을 느끼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고향 바닷가를 떠나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보게 된 그 위협적인 바다를 오히려 미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그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사람이 바다를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다라는 미적 대상의 장엄한 모습에서 색다른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상적 예에서도 드러나듯 미적 경험은 반드시 생물학적—선천적—토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 문화적—후천적—문제가 개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은 생물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토대와 대비되는 뚜렷한 토대는 문화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애플턴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경관 경험의 본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러 다른 민족과 역사상의 여러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경관과 풍경화에서 나타나는 취미의 ‘다양성’이라는 문제에 그가 정면충돌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흔적을 드러낸다. 민족성이나 역사성 등

27) *EOL*, esp. ch. 5.

28) “조망-은신 이론”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것이라고 애플턴은 회고한다. “첫째, 경관미학을 생물학적 해석의 맥락내에서 놓고자 했다. 둘째,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생활의 경험에서 이론의 증거를 추출하는데 중요성을 두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개념을 축소시키고자 했다. 넷째, 이러한 축소는 이 이론을 쉽게 응용가능하게 하는 설명적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Appleton, “Prospects and Refuges Re-visited,” *Landscape Journal*, 3(2), 1984, pp. 92-93. 하지만 이러한 목적의 세제와 네제 사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조망-은신 이론”은 복합적인 것을 단순논리로 환원하는 방법이 안고 있는 위험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

의 제반문제에 기인하는 여러 양식과 유형과 취미 사이의 모든 차이점들을 자신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완전히 일치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보편적인 미적 개념과 보편적인 상징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점들이란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모든 경관경험에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의 표현을 위해 이용되는 관용어구일 뿐이다.<sup>29)</sup>

그러므로 취미란... 타고난 열망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방법의 의해 획득된 선호라고... 분석된다.<sup>30)</sup>

이런 식으로 애플턴의 분석에는 “표현의 관용어구”(idiom of expression)나 “관계체계”(system of conventions)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역사적, 문화적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고유한 생물학적 결정론의 개념인 “적지선호이론”이나 “조망—은신 이론”의 토대가 일부 수정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애플턴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그의 생물학적 결정론이 미적 경험의 문화적 토대를 생물학적으로 환원시켜 버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우래서의 경관미학 이론 역시 애플턴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가 애플턴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하고 있는 몇 구절을 살펴보자.

나는 미적 경험에 관한 생물학적 설명과 문화적 설명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랭거와 같은 철학자들은 미적 감성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미학은 분명히 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턴은 「경관의 경험」에서 경관미의 비생물학적 표명은 생물학적 욕구에 대한 반응을 변용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특징지었다... 문화를 문화의 생물학적 토대로 격하시킨 것이다. 예컨대 애플턴은 조경설계의 다양한 미학적 전통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독교, 르네상스, 불교 전통의 복합체들은 모두 인간과 거주지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경관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탐구는 기본적인(보편적 혹은 생물학적) 단계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몇몇 학자들은 애플턴의 생물학적 결정주의를 비판하면서 미적 경험의 문화적 토대를 강조한다.<sup>32)</sup>

미적 경험을 생물학적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문화적 근원을 가진 행동을 유전학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그럴싸하게 둘러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sup>33)</sup>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우래서는 “미적 경험은 생물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문제 역시 포괄하는 것”이라는 식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생물학적 결정론과 문화적 결정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I. 보우래서 경관미학이론의 제문제

#### 1. 보우래서 이론의 기본 맥락

보우래서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관의 미적 경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그는 “경관”을 미적 대상으로 개념정의하고자 경관에 관한 여러 사고를 다룬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미학 이론을 고찰해가면서 미적 대상으로 상징된 경관의 경험에 관한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해 나간다.

보우래서는 토지나 지역이라는 의미를 지녔던 고영어 ‘landscape’가 지리학 용어인 독일어 ‘Landschaft’와 일상용어인 ‘landskip’으로 변천하여 현대적 용법의 ‘landscape’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경관이라는 단어의 모호성을 논한다.<sup>34)</sup> 특히 그는 대상으로

29) EOL, p. 226.

30) EOL, p. 237.

31) 대표적인 예로, Bunkse, *op. cit.*: Jeans, *op. cit.*: Tuan, *op. cit.*

32) AOL, p. 47.

33) AOL, p. 65.

34) Cf. AOL, pp. 2-8. 특히 보우래서는 “경관의 현대적 개념은 토지소유권의 봉건적 형태가 자본주의적 형태로 바뀌는 혁명적 과정과 동시에 발달된 것이다. 즉, 토지와 그 이용자간의 긴밀한 연결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단절되었을 때 경치로서의 경관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코스그로브의 견해에 동감한다. Cf. Daniel E. Cosgrove,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London: Croom Helen, 1984).



부터 일정정도 떨어져서 보는 경치로서 경관을 파악하는 입장은 '실존적 내부자' (existential insider)의 관점을 결여한 '외부자' (outsider)의 관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경관미학'은 경관 개념이 지니는 외부자적 편견과 시각적 경험의 강조로 인해, 경관에 대한 내부자의 미적 경험과 후각, 미각, 촉각 등이 뒤섞여 발생하는 미적 경험은 포괄하지 못하는 용어일지도 모른다.<sup>35)</sup> 하지만 미학 연구의 전제 조건은 '미적 지각'이며 경관은 지각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환경미학보다는 경관미학이 자신의 의도에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경관을 미적 대상으로 다루지 않아왔던 미학의 전통을 고찰하면서, 자연미를 미학의 주제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소수의 미학자들의 견해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보우래서는 경관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관은 예술과 인공물과 자연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미적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sup>36)</sup>

경관은 일상적 삶의 장이며, 따라서 경관미학은 일상적 경험의 미학이다.<sup>37)</sup>

이론 전개의 두번째 단계로서, 보우래서는 주로 산타야나(G. Santayana), 칸트, 듀이 등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미적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해 나간다.<sup>38)</sup> 그는 우선 감각적(sensory),

형식적(formal), 상징적(symbolic) 차원으로 미적 경험의 차원을 구분한 산타야나의 이론에 주목한다.<sup>39)</sup> 보우래서는 벨의 "의미있는 형식"<sup>40)</sup>이나 비어즐리의 "통일성, 복잡성"<sup>41)</sup> 등과 같은 형식론은 경관의 미적 질을 다루기에 부적합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경관의 미적 질은 형식적이고 물리적인 특징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보편적인 형식론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곧 초문화적인 것으로서 곧 생물학적이 된다고 그는 파악한다. 한편 상징론은 문화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에 토대를 두는 형식론이라는 점을 간파한다. 요컨대, 그는 형식적인 미적 경험의 차원은 생물학적 토대를 가지는 것이며 상징적인 미적 경험의 차원은 문화적, 개인적 토대를 가지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구상하는 삼원적 미적 경험 모드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경관에 대해서 외부자의 관점과 실존적 내부자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평행하게 미적 경험에 대한 미학 이론에도 역시 분리적(detached)인 입장—대표적인 예로 칸트 이후의 "무관심성"의 미학을 계승한 미적 태도론—과 참여적(engaged) 입장—대표적인 예로 듀이의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론—이 공존해왔음을 간파한다. 보우래서는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에 동감하는 입장을 취한다.<sup>42)</sup> 무관심성의 전통을 낳은 칸트는 「판단력비판 *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미적 능력은

35) 실제로 칼슨이나 스파쇼트 같은 미학자들은 경관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환경미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f. A. Carlson, "Appreciation and the Natural Environment,"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47(1), 1979, pp. 267-75; E. F. Spartshott, "Figuring the Ground: Notes on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Aesthetic Environment,"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6(32), 1972, pp. 11-23.

36) Cf. AOL, pp. 8-21

37) AOL, p. 20.

38) Cf. AOL, pp. 22-28.

39) 이 구분은 실제로는 건축미학자 랭(J. Lang)이 산타야나의 구분을 변용한 것이다. Cf. J. Lang,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87), esp. pp. 179-216. 원래 산타야나는 미적 경험의 세번째 차원을 '상징'이 아니라 '표현'(expression)으로 명명하였다. Cf. Santayana(1896) *The Sense of Beauty: Being the Outline of Aesthetic Theory* (NY: Dover, 1956).

40) 벨은 "의미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을 지닌 대상에 의해 생기는 '특별한 감성'이 미적 경험을 만든다고 말한다. Cf. Clive Bell, *Art* (London: Chatto and Windus, 1913).

41) Cf. M. C. Beardsley, "The Discrimination of Aesthetic Enjoyment," in M. J. Wreen and D. M. Callen, eds., *The Aesthetic Point of View: Selected Essays*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2).

취미의 능력이고 도덕적 능력은 욕구의 능력이며 논리적 능력은 지식의 능력"이라는 식으로 미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분리시켰으며, 따라서 좋은 취미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미적 판단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보편적 입장이 성립된다.<sup>43)</sup> 보우래서는 이처럼 미적 취미와 실천이성을 분리하는 칸트류의 입장은 경관이라는 미적 대상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관은 자연과 인공물과 예술의 복합체이며 특히 공공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도덕적, 실제적 가치는 미적 가치와 분리되어서 경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적 경험이란 미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은 일상적 경험의 완성, 곧 "하나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듀이의 견해에 일치한다. 보우래서는 어떤 미적 경험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도 있다고 보아 '생물학적' 기반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적 경험의 '문화적' 차원, 그리고 미적 경험에 있어서 예술가 '개인'의 공헌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삼원적 미적 경험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우래서는 애플턴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함은 물론 이와 대조되는 여러 미학이론의 문화결정론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 양자를 초월할 수 있는 경관미학의 패러다임을 구

축하고자 한다. 요컨대 경관의 미적 경험은 생물학적, 문화적, 개인적 모드라는 삼원적 틀로서 구성된다는 것이다.<sup>44)</sup> 이 패러다임은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비고츠키(L. S. Vygotsky)의 인간정신과 인간행동에 대한 발달론적 접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것이다. 비고츠키는 발달론적 방법을 강조하여 인간의 발달은 세가지 근본적 과정—유전적 진화, 문화사, 개인 발달—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45)</sup> 보우래서는 이 세가지 과정은 실존적 분석주의자들에 의해 현상학적으로 규명된 환경(Umwelt), 공동체세계(Mitwelt), 자체세계(Eigenwelt)라는 세가지 실존 모드와 일치된다고 파악하며, 이들은 곧 미적 경험의 세가지 모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가지 미적 경험의 모드는 미적 제한요인과 기회요인의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미적 경험의 생물학적 모드는 법칙(laws)이라는 제한요인과, 문화적 모드는 규칙(rules)이라는 제한요인과 관련되며, 특히 개인적 모드는 전략(strategies)이라는 기회요인과 관련된다는 것이다<sup>46)</sup> (<표 1> 참조).

보우래서는 이러한 삼원적 모드 각각의 예를 다루게 된다. 생물학적 법칙에 관해서는 생존과 미의 관계, 그리고 인류 초기의 인간 거주환경과 현대의 경관 선호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자신

42) Cf. AOL, pp.28-42. 보우래서가 이처럼 참여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이후 환경미학의 영역을 개척해온 베일런트(Arnold Berleant)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베일런트는 근대미학의 전통적 교의인 "무관심성" 개념이 결코 미적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관자와 대상이 합체되는 "미적 장"에의 "참여"가 미적 경험의 전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참여 개념을 환경미학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Cf. Berleant, *The Aesthetic Field*: (Springfield:Charles C. Thomas, 1970);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Temple Univ. Press, 1991); *The Aesthetic of Environment* (Philadelphia:Temple Univ. Press, 1992). 필자는 다음 논문에서 베일런트 이론의 구조를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Cf. 조정송·배정환,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구조와 문제—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 『미학』, 19집, pp.225-59.

43) Cf. Immanuel Kant(1790) *Critique of Aesthetic Judgement*, trans. by J.C. Meredith(Oxford Univ. Press, 1911).

44) 보우래서는 융(Jung)심리학이 제안한 틀내에서 실용주의적 미학이론과 인문주의적 미학이론을 결합하여 경관의 미적 경험은 '생물학적' 모드와 '문화적' 모드의 상호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Cf. Bourassa, "Toward a Theory of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5, 1988, pp.241-52. 하지만 이후의 논문에서는 비고츠키의 이론을 차용하여 '개인적' 모드를 추가시킨다. Cf. Bourassa, "A Paradigm for Landscape Aesthetics," *Environment and Behaviour*, 22(6), 1990, pp.787-812.

45) 유전적 진화론은 계통발생론(phylogenesis), 문화사는 사회발생론(sociogenesis), 개인발달론은 개체발생론(ontogenesis)에 해당된다.

46) Cf. AOL, pp.47-65.

〈표 1〉 실존과 미적 경험의 모드

I	II = III	IV	V
계통발생(Phylogenesis)	환경(Umwelt)	생물학적(Biological)	법칙(Law)
사회발생(Sociogenesis)	공동체세계(Mitwelt)	문화적(Cultural)	규칙(Rules)
개체발생(Ontogenesis)	자체세계(Eigenwelt)	개인적(Personal)	전략(Strategies)

주) I : 발달과정, II : 발달의 산물, III : 실존모드, IV : 미적 경험의 모드, V : 제한요인과 기회요인 (AOL, Table 1(p.55), Table 2(p.56), Table 3(p.64)을 필자가 재구성함)

의 패러다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플턴의 “조망-은신 이론”에 대해 그는 특별한 주목을 한다. 그리고 ‘정보 — 과정이론’ (information — process theory)과 ‘게슈탈트 이론’ (Gestalt theory) 등과 같이 생물학적인 접근에 기반을 둔 여타의 형식론을 재평가하기도 한다.<sup>47)</sup> 문화적 규칙에 관해서는 문화의 특성과 맥락내에서 경관에 대해 인간이 갖는 미적 태도의 일반적 성격을 탐색한다. 보우래서는 지속성과 정체성을 문화적 태도와 규칙의 근본적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다른 집단의 미적 태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문학작품을 예로 들어 전개시킨다.<sup>48)</sup> 개인적 전략에 관해서는 문화변동의 원천으로서 개인적 창조성이 갖는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sup>49)</sup> 한편 그가 경관평가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량적 평가를 칼슨의 견해를 차용하여 비판하면서 정성적 ‘경관비평’ (landscape criticism)의 우월성을 주장한 점에서도 나타나듯,<sup>50)</sup> 그는 자신의 삼원적 패러다임이 경관평가나 조경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sup>51)</sup>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보우래서의 이론은 애플

턴의 생물학적 결정론과는 달리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의 모든 국면을 올바른 논리와 증거에 기초해 해명하고 있는 것인가?

## 2. 경관과 미적 대상

‘경관’과 ‘미적 경험’이라는 두 기본 개념의 의미에 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우래서는 애플턴에 비해 경관미학의 주요 문제에 한층 더 접근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보우래서는 경관의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이라는 이유로 경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념 — 즉 외부자의 관점 — 을 비판하고 실존적 내부자의 관점에서 경관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보우래서가 이처럼 내부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가 미적 경험에 대한 참여적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관은 일상적인 미적 경험의 대상이므로 외부자의 관점보다는 실제로 경관을 경험하고 있는 내부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보우래서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물론 경관의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이라고 보는 관점은 어느 정도 타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47) Cf. AOL, pp.66-89.

48) Cf. AOL, pp.90-109.

49) Cf. AOL, pp.110-19.

50) 환경미학자 칼슨은 라이브(R. Ribe)와의 지면논쟁을 통해 경관의 정량적 평가를 비판하고 ‘환경비평’을 주장한 바 있다. Cf. Carlson,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 1977, pp.131-77.

51) Cf. AOL, pp.120-45. 최근의 논문에서 보우래서는 경관미학과 공공복지 및 경제와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는 등, 자신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Cf. Bourassa, “Public Welfare and the Economics of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2, 1992, pp.31-39.

보편적인 생각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식생이 다양하고 지형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설악산과 엇비슷한 어느 외국의 어떤 절경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일상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우연한 기회에 몽고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대평원 경관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만일 일상적인 경관의 경험만이 그가 말하는 경관의 경험이라고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적 경험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내부자의 관점만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불충분하다. 예컨대 우리는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버스 속에서 차창으로 다가오는 가본 적 없는 동네의 경관에서도 외부자의 입장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관의 미적 경험에는 실존적 내부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그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는 '경관'이라는 말 대신 '환경'이나 '장소'라는 말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우래서가 '경관'을 미적 대상으로 상징하는 논리에서 발견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물론 칸트 이후의 미학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 주로 예술임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경관미학이나 환경미학과 같은 연구영역이 미학의 영역내에서 거의 전무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관은 미학의 대상이 아니었지 미적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만한 것이다. 어떤 경관에 미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성질'이 있다면 그 경관은 이미 미적 대상이라는 논리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의 증거는 일상생활 속의 경험적 사실 내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단풍이 곱게 물든 설악산의 절경에서, 오곡이 무르익은 농촌의 황금빛 가을 풍경에서, 63빌딩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거대도시 서울의 야경에서 '어떤' 미적인 것을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관은 이미 미적 대상(aesthetic objec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우래서가 밝히고자 했던 것은 아마도 경관이 중요한 미학의 대상(object of aesthetics)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판단된다. 물론 그의 이러한 의도에는 비판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는 '미적 대상'과 '미학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미적 대상'으로서의 '경관'의 문제를 해명하는데에는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그가 '미적 경험'이라는 다음 단계의 주제를 설명해 나가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미적 대상으로서의 경관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미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미적 지각을 일으키는 '어떤' 국면을 가진 경관은 미적 대상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관은 비미적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미적 대상'의 문제가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미적 경험이나 미적 향수나 미적 판단 등에 관한 논의는 사상누각이 될 지도 모를 위험을 가진다고 하겠다.<sup>52)</sup>

### 3. 삼원적(생물학적·문화적·개인적) 미적 경험론의 문제

경관의 미적 경험에 대한 보우래서의 논의에서는 두가지 문제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나 실체적 가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 칸트 등의 전통적 입장보다는 미적 가치를 그밖의 가치와 분리시키지 않고 있는 듀이의 입장에서 경관의 미적 경험을 파악하고 있는 보우래서의 전제가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서양미학사의 중요한 문맥을 구성하는 부분이며 어떠한 정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관에 관한 논의에서라면 보우래서의 입장은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관에 대한 몇가지 미적 경험의 예를 들어보자. 예컨대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

52)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적 대상으로서의 '환경'을 규정해주는 '제도적 관례'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조정송, "제로로서의 예술과 환경," 『한국조경학회지』, 13(1), 1985, pp. 91-98; Yrjö Sepänmaa, *The Beauty of Environment* (Helsinki: Sumalainen Tiedeakatemia, 1986).

계획된 신도시의 경관에서는 그것의 미적 가치만을 떼어내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연한 사람이 과거의 연인과 즐겨 찾던 어느 해변에 다시 갈 기회가 생겨 그곳의 경관을 경험한다면 그 경험은 분명 미적 경험만은 아닐 것이다. 백두산을 여행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천지를 굽어보며 경험하는 것은 천지에 대한 미적 경험임에 분명하겠지만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에 대한 가치 또한 뒤섞여있을 것이다. 물론 칸트와 같은 입장에 선다면 미적 경험은 실제적 관심이 결여된 상태 곧 “무관심적”인 경우에만 발생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의 예들은 결코 미적 경험의 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관심성과 같은 심적 상태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많은 반론이 있다는 점과 논의의 대상이 다양한 가치가 뒤엉켜 있는 경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적 경험을 분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있는 보우래서의 전제는 적절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보우래서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의 세가지 모드 — 생물학적 법칙, 문화적 규칙, 개인적 전략 — 에 문제점은 없는지 의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보우래서의 삼원적 미적 경험론은 애플턴과 같이 경관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자들과, 그것을 순전히 문화적 현상이라고 간주하는 문화결정론자들 사이의 갭을 매우기 위한 그의 문제의식에서 연유된 것이며 어느 정도는 그 갭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임은 분명하다. 보우래서는 비고츠키의 인간정신과 행동에 대한 발달론적 접근을 자신의 패러다임의 기초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고츠키의 세 범주가 미적 경험의 모드와 연결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경관의 미적 경험을 생물학적, 문화적, 개인적이라는 세가지의 모드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각 범주의 상호관계에 의한 경험은 설명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물학적 법칙을 나머지 인자들과 분리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옳은 것 같다. 타고난 선천적 기질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비교적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적어도 문화적, 개인적 인자들에 비해서는 변화의 과정이 느린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학적인 토대를 갖는 형식론과 같은 미학 이론으로서 경관의 미적 경험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토대 외에 문화적 토대를 덧붙이고 있는 보우래서의 이론은 애플턴의 이론에 비해 포괄적이다. 그러나 문화적 인자와 개인적 인자를 구분한 것에는 우리가 따르며, 그러한 구분은 여러가지 이유로 약점을 갖는다. 보우래서 자신이 개인적 특징(idiosyncrasy)을 문화적으로 결정된 기질(proclivity)에 따른 차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구분은 그 자체로서도 의심스럽다. 특히 개인적 전략을 다룬 부분 전체가 “창조성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전적으로 무장되어 있는”<sup>53)</sup> 창조적인 개인들에 대한 주목으로 채워져 있다. 창조성(creativity)에 대한 보우래서식의 정의는 서양문화권내의 조경가와 화가나 그밖의 예술가들에 의해서는 인식될 수 있겠지만 그외 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자율적 예술가(autonomous artist)라는 서양의 근대적 관념을 방어하는 듯한 인상의 문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규칙이라는 모드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개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문화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차원의 개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보우래서는 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시대적 차이를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가 생물학적 결정론을 극복하고자 의도했다면 시대적 차이라는 또 하나의 문화적 인자를 해명했어야 한다. 문화는 물론이고 문화에 기반한 미적 가치나 경험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와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적 가치나 경험 뿐만 아니라 경관이라는 주제 역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라는 점 또한 비중있게 다루어졌어야 한다.

53) AOL, p.121.

## V. 맺 음 말 - 경관미학의 과제

환경/경관미학은 예술만을 논의의 중심에 두어 왔던 19세기 이후의 근대 미학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자, 일상적 삶과 그 삶의 공간을 향해 열려진 미학을 약속하는 시도이다. 특히 정태적인 미학 연구에 실천적·생산적 자극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경학이나 지리학 분야의 환경/경관 연구에 철학적 근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경관미학은 의의를 지닌다. 그렇다면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사회과학을 동원하여 경관의 미에 접근하는 연구와는 달리 경관미학만이 역할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념들 — 그것이 상식이건 이론이건 간에 — 은 우리의 삶을 지시하고 통제한다. 즉 우리는 대개 우리의 신념들에 입각해서 행동을 취한다. 이처럼 세계와 우리 자신에 관해 참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신념은 우리가 취할 행동과 추구할 목표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만큼 우리의 행위가 참된 신념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념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기 십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적 활동으로서 철학은 기능하며, 미학은 그러한 철학의 한 분파라 할 수 있다.

“경관의 미는 우리의 선호나 만족과 관계가 있다”라든지 “경관의 미는 비례와 조화가 보장한다”는 등 우리는 경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념들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참된 것일까? 경관미학의 기능을 철학과 미학이 담당해야 할 과제에 비추어 말하자면, 그것은 “경관의 미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철학적 활

동”일 것이다.<sup>54</sup> 따라서 경관미학이 담보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우리가 ‘경관’이나 ‘미’라는 말을 쓸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신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거기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비일관성을 지적하고 극복하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경관미학의 과제일 것이다.<sup>55</sup>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일반적 신념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비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식의 신념들을 논리와 증거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자연과학도 사회과학도 기능할 수 없는, 비판적 활동으로서의 철학과 미학에 기반한 경관/환경미학이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비판적 작업의 틀 내에서 우리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경관, 그러한 대상이 지닌 ‘미적 가치’의 향수, 그리고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영역으로서 ‘미적 경험’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관미학의 과제에 비추어 본다면,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애플턴의 경관미학이론과 이에 반기를 올린 보우래서의 삼원적-생물학적, 문화적, 개인적 — 경관미학이론은 어떠한 좌표상에 놓여지는가?

경관미학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애플턴은 자신이 구축한 “적지선호이론”과 “조망 — 은신 이론”을 토대로 하여 경관에 대한 미적 반응은 선천적인 것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물적 욕구로부터 비롯된다고 논증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입장에 경도된 그의 환원론적 이론이 경관에 대한 인간의 미적 경험을 과연 개연성 있게 해명하고 있느냐는 점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애플턴의 “조망 — 은신 이론”은 근래에 들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무관심적 미적 태도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54 여기서 ‘비판적’(critical)이라는 말은 ‘개념분석’(conceptual analysis)이라는 의미로서, 이는 분석철학의 거두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에 의해 개발된 철학적 방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음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G. Pitcher,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박영식 역 (서울:서광사, 1987); M. Corado, 『분석철학: 그 전통과 쟁점들』, 광광제 역 (서울:서광사, 1986). 제목에서 암시되고 있듯, 본고 역시 애플턴과 보우래서가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55 비판적 철학으로서의 미학이 담보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Jerome Stolnitz,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Criticism* (Boston: Houghton Mifflin, 1960), esp. ch. 1.

반면 보우래서는 경관과 미학이라는 기본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패러다임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결정론은 물론 문화결정론적 시각 또한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그의 이론이 논리는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그가 애당초 해명하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특히 생물학적, 문화적, 개인적이라는 미적 경험의 세가지 모드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을 경관의 미적 경험을 오히려 단순화시킬 지도 모를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턴과 보우래서 양자의 이론은 경관미학의 정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경관이 우리의 일상적인 미적 대상임이 명백함에도 그에 대응되는 이론적 미학연구의 축적이 부실한 현실을 극복하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논증과정과 접근방법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차원적 경관의 미적 경험을 해명할 수 있는 몇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실증과학적 연구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경관의 미에 관한 근본적 의문에 철학적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의 경관미학 연구는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오병남(1979) "미적 태도론의 성립과 현대미학의 문제", 『미학』(한국미학회지), 6: 1-27.
- 조정송(1985) "제도로서의 예술과 환경", 『한국조경학회지』, 13(1): 91-98.
- 조정송, 배정환(1994)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구조와 문제: 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 『미학』(한국미학회지), 19: 225-59.
- 황기원(1989) "풍경화에 나타난 경관", 『환경논총』, 24: 26-74.
- Appleton, J. (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London: John Wiley & Sons.
- \_\_\_\_\_ (1975) "Landscape Evaluation: the Theoretical Vacuum",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66: 120-23.
- \_\_\_\_\_ (1976) "Landscape Aesthetics in the Field", in Jay Appleton, ed., *The Aesthetics of Landscape*,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in the Univ. of Hull, Rural Planning Service Ltd., pp. 14-22.
- \_\_\_\_\_ (1978) *The Poetry of Habitat*, Univ. of Hull, UK.
- \_\_\_\_\_ (1980) *Landscapes in the Arts and Sciences*, Univ. of Hull, UK.
- \_\_\_\_\_ (1982) "Pleasure and the Perception of Habitat: A Conceptual Framework", in B. Sadler & A. Carlson, eds., *Environmental Aesthetics: Essays in Interpretation*, Webster Geographical Series vol. 20, Victoria, BC: Univ. of Victoria, pp. 27-45.
- \_\_\_\_\_ (1984) "Prospect and Refuges Revisited", *Landscape Journal*, 3(2): 91-103.
- \_\_\_\_\_ (1990) *The Symbolism of Habitat: An Interpretation of Landscape in the Arts*, Univ. of Washington Press.
- Beardsley, M. (1982) "The Discrimination of Aesthetic Enjoyment", in M. J. Wreen and D. M. Callen, eds., *The Aesthetic Point of View: Selected Essays*,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 Bell, C. (1913) *Art*, London: Chatto and Windus.
- Bergman, E. F. (1978) "Review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Geographical Review*, 68(1): 106-08.
- Berleant, A. (1970) *The Aesthetic Field: A Phenomenology of Aesthetic Experience*,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 \_\_\_\_\_ (1991)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_\_\_\_\_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_\_\_\_\_ (1994) "Review of 'The Aesthetics of Landscape' by Steven C. Bourassa",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8(1): 115-18.
- Bourassa, S. C. (1988) "Toward a Theory of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5: 241-52.

21. \_\_\_\_\_ (1989) "Postmodernism in Architecture and Planning: What Kind of Style?", *Journa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Research*, 6(4):289-304.
22. \_\_\_\_\_ (1990) "A Paradigm for Landscape Aesthetics", *Environment and Behavior*, 22(6):787-812.
23. \_\_\_\_\_ (1991) *The Aesthetics of Landscape*, London: Belhaven Press.
24. \_\_\_\_\_ (1992) "Public Welfare and the Economics of Landscape Aesthetic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2: 31-39.
25. Bunksé, E.V. (1977) "Review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7(1):149-51.
26. Carlson, A. (1977)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 131-77.
27. \_\_\_\_\_ (1979) "Appreciation and the Natural Environment",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47(1):267-75.
28. \_\_\_\_\_ (1993) "On the Theoretical Vacuum in Landscape Assessment", *Landscape Journal*, 21(1):51-56.
29. Clamp, P. & M. Powell (1982) "Prospect-Refuge Theory Under Test", *Landscape Research*, 7: 7-8.
30. Corado, M., 광광제 역 (1986) 「분석철학: 그 전통과 쟁점들」, 서광사.
31. Cosgrove, D. E. (1982)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London: Croom Helm.
32. Crawford, D. (1976) "Review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4(3): 367-69
33.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Y: Allen & Unwin.
34. Dickie, G. (1974) *Art and the Aesthetic: An Institutional Analysis*,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오병남 역 (1982) 「현대미학: 예술과 미적 대상의 분석」, 서광사.
35. Hepburn, R. W. (1968) "Aesthetic Appreciation in Nature", in H. Osborne, ed., *Aesthetics in the Modern World*, NY: Weybright & Talley, pp.49-65.
36. Heyligers, P. C. (1981) "Prospect-Refuge Symbolism of Dune Landscape", *Landscape Research*, 6: 7-11.
37. Howard, P. (1992) "Review of 'The Aesthetics of Landscape' by Steven C. Bourassa", *Landscape Research*, 17(2):56-57.
38. Kant, I. (1911) [1790] *Critique of Aesthetic Judgement*, trans., J.C. Meredith, Oxford Univ. Press.
39. Jeans, D. N. (1977) "Review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Australian Geographer*, 13(5):345-46.
40. Lang, J. (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The Role of the Behavioral Sciences in Environmental Design*, NY: Van Nostrand Reinhold.
41. Paulson, R. (1976/77) "Towards the Constable Bicentenary: Thoughts on Landscape Theory", *Eighteenth-Century Studies*, 10: 245-61.
42. \_\_\_\_\_ (1982) *Literary Landscapes: Turner and Constable*, London: Yale Univ. Press.
43. Pitcher, G., 박영식 역 (1987)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서울: 서광사.
44. Santayana, G. (1956) [1896] *The Sense of Beauty: Being the Outline of Aesthetic Theory*, NY: Dover.
45. Sepänmaa, Y. (1986) *The Beauty of Environment*,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46. Sparshott, F. E. (1972) "Figuring the Ground: Notes on Some Theoretical Problems of the Aesthetic Environment",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6(3):11-23.
47. Stolnitz, J. (1960) *Aesthetics and the Philosophy of Art Criticism*, Boston: Houghton Mifflin; 오병남 역 (1990) 「미학과 비평철학」, 서울: 이론편과 실천.
48. Tuan, Y. F. (1976) "Review of 'The Experience of Landscape' by Jay Appleton", *Professional Geographer*, 28(1):104-05.
49. Woodcock, D. M. (1982) "A Functionalist Approach to Environmental Preferenc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nn Arbor: Univ. of Michigan.